

# 을유년(乙酉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따뜻한 충고와 애정어린 성원 부탁



**변진수**  
경기도포천교육장

대망의 200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한해였습니다. 포천에서도 많은 큰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으며 우리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떨치며 노력한 박찬 감독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교육계에서

도 포천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그동안 이런 모든 영광과 아쉬움의 순간마다 포천신문은 늘 우리 곁에 함께 하였습니다. 포천신문은 항상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시민의식을 앞장서서 선도하는 올바른 여론 조성과 正論正筆의 모습을 보여준 포천신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 문화 창달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변함없이 우리와 더불어 사랑과 애환을 함께 나누며 늘 포천시민의 곁에선 지역 正論지가 되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포천시민 여러분! 21세기는 다양화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간상의 정립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도 새로운 지식기반사회, 정보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포천신문 최호열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밝고 희망찬 한해가 되시길 바라며 늘 시민과 함께 하는 친근한 벗으로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동반자로서, 正論正筆의 자세로 시민의식 발전을 선도해 가는 개척자로서 포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범죄일소 및 주민만족 치안’ 이뤄



**김영목**  
포천경찰서장

을유년 새해를 맞아 포천신문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하고자하는 일들이 하나 하나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포천경찰은 지난 한해동안 경찰의 고유 임무인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뿐 아니라, 양질의 혁신과제 추진으로

주민의 치안서비스 만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범죄분위기 이등로 차단 합동목표문소 운영’ 등 혁신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7대 범죄 발생율이 23.8% 감소, 범죄 검거실적 60% 증가, 음주운전 144% 감소라는 혁신적인 수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전국 경찰서 주민만족도 평가에서도 최우수 경찰서로 평가되는 등 범죄 일소 및 주민만족 치안’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는 시민 여러분의 애정없는 성원과 격려의 덕택이라고 보고 있으며, 또한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와 경기침체 여파로 생겨날 범죄 및 민생침해 범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포천경찰 전직원 일동은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서비스경찰 지향은 물론, 올 한해도 어려울 때 도움주는 믿음직한 이웃으로서 사회안전망 구축의 선도주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가장 우수한 포천, 가장 안전한 포천’의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갑시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께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 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도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도전과 응전의 새로운 기회에 직면



**이대열**  
포천소방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소방관 여러분 이제 2005년 을유년의 새해가 열렸습니다. 국가적으로 지방분권과 지역역량 강화, 수도권 이전이 단 걸림돌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집권체제를 벗어나 지방 스스로 살아가야 하는 시대적 조류에, 우리는 도전과 응전의 새로운

기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포천시민의 품격 높은 문화자원과 수려한 천혜 자연, 역사적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를 향한 “안전한 도시 포천”의 내러티브를 펼쳐야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가속화되어 불투명해야 하는 전술감이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지 못하면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소방관들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성찰로써 시대적 변화와 흐름을 직시하고 자기한정(自己限定)의 틀을 깨는 발

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화재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5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감격을 주는 소방행정서비스 발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면서 이를 풀어야 할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기회는 역사속에서 여러번 주어지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포천의 밝은 미래는 반드시 찾아 올 것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미래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아늑한 왕방산의 품에서 아름다운 꿈을 지니고 사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소방관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한 을유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새농촌 새농협 운동’ 전개



**황성택**  
농협 포천시지부장

을유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게 됩니다. 올해는 기억에 남았지만 새해 아침은 새로운 희망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는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

에서 보낸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특히 경기침체는 누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서민의 생을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경기침체는 산업 전반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기업들은 지금도 구조조정을 통해 사람들을 떠나 보내고 있으며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으로는 새해에는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경제가 살아나리라 기대를 가져 봅니다. 우리농협은 40여년 동안 각종 사업을 통해 농업인 실익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농업 농촌이 쌀시

장 개방협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농협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결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농협은 환골탈태와 제2의 창립정신으로 ‘새농촌 새농협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민과 조합원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은행으로서 농협을 사랑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함은 있었지만 반드시 개선하여 한층 더 성숙된 농협으로 태어나겠습니다. 지역과 농민에 기여하는 농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시민과 지면을 통해 주신 포천신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농협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 새해에는 ‘가정사랑’ 실천운동을



**이병엽**  
바르게살기운동 포천시협의회장

친애하는 15만 시민여러분! 희망에 찬 새해 을유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알찬 새해 살게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지역사회발전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갑신년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큰 시련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우리 고장 포천을 지방화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선진고장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힘겨운 과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국가가 바로서기 위해서는 개인이 바로서야 되고, 개인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의 최소 단위원 가정(家庭)의 올바른 자리 잡음이 절실한 실정이며, 지금 우리는 가정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을 위한 사랑의 실천운동에 모두 앞장 서야 합니다.

친애하는 15만 포천시민 여러분. ‘가정이 바로서야 사회가 바로 선다’ 우리 모두 뜻을 모아 머지 않은 장래에 찾아올 통일시대의 중심지가 되도록 포천을 사랑하고 가꾸는데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으로 지역에서 바르게 살기운동 활성화와 자원봉사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60여 바르게살기운동 가족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든 시민이 올바른 의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가정사랑’ 실천운동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는 포천신문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 경기북부 선도하는 참언론 성장 기대



**이동해**  
(사)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장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엔 서산에 기울었다. 그간 포천신문의 업적은 실로 대대하다. 만인이 공감한다.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포천사회의 일부는 그렇지 못한 극소수

들이 아직도 그대로인 듯 하다.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하는데도 나 아니면 안된다는 사고는 아직도 유효한 것일까?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경제문제, 4대 입법문제, 좌·우의 갈등, 등·서민은 피곤하다 못해 죽을 지경이다. 바라건대, 새해에는 이러한 정책과 갈등 등이 말끔히 해결되어 서민이 허리를 펼 수 있는 확실한 정책 방향이 잡혀지기를 기대한다.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를 삼아야 할 때다. 새해에는 앞만 보고 뛰는 한해가 되기를 당부한다. 농촌을 지키는 농업인은 또다시 한번 더라는 심정으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기업인은 근로자를 가족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달리는 경쟁자는 등수에 관계없이 박수를 받을 자격이 있다. 각자 처해진 위치에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서로 존경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 화기애애한 가정, 생동감 넘치는 일터, 신바람 나는 사회로 만드는 주역이 되자. 이에 언론은 책무를 다해야 한다. 포천신문이여! 말하라! 을유년에는 과감하게 말하라! 무관의 제왕이 아닌 정론직필로 말하라. 우리사회는 잡자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라. 을유년 새아침에 우리는 지켜본다. 포천신문 그대로 믿는다.

## 을유년, 또다른 희망원년의 아침



**이완규**  
포천우체국장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포천신문 가족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신년은 지나고 을유년(乙酉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포천신문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2004년은 나라 안팎으로 다사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반목과 대립이 많았지만 세계 경제는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고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특히 내수 부진이 극심하였으며 새해에도 그러한 부진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마음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내수 부진은 특히 지역 경제에 더욱 어려운 여건을 조성한다는 걸 감안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부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긴 밤을 지나 새벽을 알리는 닭의 울음

과도 같은 을유년입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남들보다 조금 더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을유년이 희망의 또 다른 원년의 아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웠던 IMF환란도 슬기롭게 대처했던 우리의 저력을 상기하시고 스스로 자강심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은 우리 포천우체국인 문을 연지 꼭 100년을 맞이하게 되는 경사스러운 한해이기도 합니다. 지역주민의 근방 속에 꾸준한 발전하여 150여명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뜻 깊은 한해입니다. 개국(開局) 100주년을 맞아 우리 포천우체국 전직원은 포천시민 여러분에게 보다 편리하고 사랑받는 기관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 평화통일 그날위해 화합·단결하자



**윤정일**  
민주평화통일문화연구소장

존경하는 15만 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33명의 동료 자원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원숭이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가고 희망찬 을유년의 붉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예부터 닭은 인간에게 시간을 알려주며 새벽닭이 해를 치며 울면 하루가 시

작 된다는 상서로운 동물로 우리 인간들의 버리에 각인되어 왔던 바로 그 닭의 해를 맞이하여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이마에 짜증스러웠던 주름살이 활짝 걷히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여의 민사형통하시기를 머리 숙여 기원합니다. 특히 남북한 문제도 꾸준한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해빙의 무드를 타고 드디어 개성 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기 새희망의 무결속에 환한 한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조국의 평화통일 기류도 한층더 진일보해 나가는 환경속에서 부끄럽게도 국제사회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한반도에 화해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길고 어두웠던 분단의 터널을 벗어나 평화통일의 길밭아래 7,000만 겨레가 부둥켜 안고 어허동일 기쁨의 춤을 추는 진정한 평화통일의 그 날을 위해 새해에는 더욱 화합하고 단결하여 분열되는 국민이 아니라 하나로 굳게 뭉쳐 국론통일로 총 매진하는 포천! 발전하는 포천을 이룩해 나가는데 우리 모두 동참하는 신년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리하여 통일된 화려한 금수강산 내조국 이강토를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됩시다. 희망찬 을유년 새해에 시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부자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사랑과 봉사의 불길이 치솟기를



**이성덕**  
포천로타리클럽회장

을유년 새해가 동해를 붉게 물들리며,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거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경제의 어둠과 긴 불황의 터널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지만 사랑과 봉사의 불길은 더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부상조하는 우리민족의 전통을 오늘에 살려 불우한 이웃에

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가 됩니다. 2005년은 순수봉사단체인 로타리가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제적으로 빈곤과 무지와 질병 특히, 지구상에서 소아비리 박멸의 2005년에 완성한다는 세계적 목표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불우단체 지원,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 포천신문사와 포천카톨릭의사회와 함께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봉사, 장학사업 등 많은 봉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 봅니다.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를 우정을 더하게 하십니까? ●모두에게 유익한가? 위와 같은 신념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때에 용기를 잃고 좌절할 이웃과 함께 어깨동무하며 함께 갈다. 조그마한 약속을 귀중히 하고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면, 머지 않은 장래에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포천시민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들시길 바라옵고, 포천시민에게 올바른 논조와 희망과 꿈을 전달하는 정론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있는 포천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내년엔 농업·농촌이 안정화되기를”



**길성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천·연천소장

힘찬 닭 울음소리와 함께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해는 더욱 여유롭고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잘 살고 칭찬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족 중 가장 글씨가 좋다는 닭처럼 을유년에는 더욱더 사랑과 믿음이 함께하고 발전하는 지역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업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1차 산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생명과 환경을 지키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문화를 이어 가는 가장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산업임에도 최근 농업·농촌이 수입개방과 웰빙화 등 급속한 환경변화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 큰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우리 농산물이 보다 더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고품질

화 되어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외국 농산물과 경쟁해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실천으로 정착되어 농업·농촌이 안정화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도 이지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장으로서 항상 농업인의 권익을 위해 매진하고 포천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일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포천신문도 지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신문으로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하여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 희망과 축복 그리고 활력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